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일 : 2025. 03. 20

283호

www.mbcunion.or.kr

발행인 윤태호 편집인 박종욱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전화번호 02-789-3881-6 FAX 02-782-0135

16기 MBC본부 오늘 출범!



전성관 본부장·민성빈 수석부본부장 97.97% 압도적 지지로 당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 16기 집행부가 오늘(20일) 출범식을 갖고 2년 임기의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오후 1시 서울 상암동 MBC사옥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출범식은 16기 집행부 구성원들과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슬기로운 조합 생활' 첫 만남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16기 집행부 임원 선거 결과, 전성관(서울지부)-민성빈(부산지부) 조합원이 16기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에 당선됐다.

두 후보는 총 투표권자 1,875명 중 1,477명이 참여한 투표(투표율 78.77%)에서 97.97%의 찬성을 기록하면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전성관 신임 본부장은 "위중한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돼,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며 "제16대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부족한 부분, 없는 퍼즐은 수석부본부장님과 실력 있는 부위원장님 다섯 분, 사무처장님께서 함께 맞춰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본부장은 특히 "좀 더 조합원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친근한 조합을 만들겠다"며 "이와 함께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당당하게 맞서며, 연대를 통해 공영방송 MBC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성빈 신임 수석부본부장 역시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본부장과 함께 공영방송 MBC를 지켜내겠다"며 "본부와 지부가 서로 힘을 합쳐 더욱 건실하고 풍성한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16기 임원 선거 결과 공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규약 제50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된 본부장 및 수석부본부장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당선자

본 부 장 : 전성관 조합원 (서울지부)
수석부본부장 : 민성빈 조합원 (부산지부)

2. 투표·개표 결과

총 유권자 : 1,875명
투표자(투표율) : 1,477명 (78.77%)
찬성자(찬성률) : 1,447명 (97.97%)

2025.03.13.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16기 출범식

오늘(20일) 오후 1시
서울 상암동 MBC사옥 1층 로비

슬기로운 조합 생활의 시작!!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발을 내딛습니다



전성관
제16대 본부장

그 발걸음에 어떤 조합원 분들은 응원의 찬성을, 다른 조합원 분들은 질책의 반대 내지는 침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약 1,900명의 목소리를 가슴에 안고 출발해 보려 합니다. 저와 저희 16기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발걸음을 디디고 싶습니다.

조합원 속으로 성큼성큼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다가가고 싶습니다. 조합원분들이 조합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상을 함께 하는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을 구성하는 여러 삶의 조건들과 욕망들. 때로는 육체적 건강이 될 수도, 때로는 편진해진 마음의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을 빼놓을 순 없겠죠. 우리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와 때로는 파트너로, 때로는 뾰족한 비판을 하는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조합의 길을 뚜벅뚜벅

반민주 세력은 여전히 저희 소중한 일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진숙의 방통위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이진숙이, 또 다른 윤석열이 싹 터 공영방송의 가치를 흔들지 모릅니다. 본부 노조는 언제나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데 늘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역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2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지 않으려 합니다. 때론 '뒤돌아보기'로 우리 발걸음을 성찰하겠습니다. '옆을 보면서' 우리 조합원 벗들이 안녕한지 살피겠습니다. 저는 그런 '보기'들이 저희에게 좀 더 바른 전망('앞을 내다보기')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16기 집행부와 슬기로운 조합 생활 시작하시죠! 컴온!!

1,900명과의 옹골찬 약속



민성빈
제16대 수석부본부장

지난 한 달, 부산지부장으로서 업무를 마무리하며 본부 선거를 위해 전국의 MBC 지부를 부지런히 다닌 나날들은 어쩌면 제 인생에 가장 바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KTX와 시외버스, 비행기에 번갈아 몸을 실으며 만나본 16곳의 지부 조합원들은 지역마다 처한 환경도 고민도 당면 과제도 다양했지만, 대표적 그리고 독보적 공영방송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왔다는 자부심과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만큼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개표 결과를 들으면서 조합원들께 무한한 감사와 함께 커다란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은 순간이었고, 가장 높은 지지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97.97%, 이제껏 MBC본부가 잘 해왔다는 평가인 동시에 지금까지의 과업을 잘 계승하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MBC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오로지 피아식별만이 존재하는 정치와 여론 환경 속에서 힘겹게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쉽지 않겠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지역 언론과 방송은 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국의 MBC 조합원들과 만나며 나누었던 약속들, 치열하게 고민하며 옹골차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알기에 아직은 막막하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을 토대로 결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2년 뒤 다음 선거에서도 MBC본부의 후보들이 계속해서 높은 지지와 응원 속에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영동 이웅 (연임)
08년 입사 / 보도

15기에 이어 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강원영동지부 동지들의 뜻을 받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허리띠를 줄라매야 하는 지역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조합원들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얻어내겠습니다. 다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정성오
00년 입사 / 보도

노동조합에 오래 몸 담아왔지만 지부장 자리는 또 처음인자라 책임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환경은 늘 바뀌어 왔지만 조합은 항상 변하지 않은 버팀목이었습니다. 2년의 임기 동안 그 역할 소홀하지 않도록 성심으로 살피고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광주 전윤철
95년 입사 / 영상

지금 광주MBC의 노동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변곡점에서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 조건과 안정된 고용, 그리고 MBC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교섭이 필요하면 강하게 교섭할 것이고, 투쟁이 필요하면 단호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 김현주
04년 입사 / 편제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외부 압력과 싸워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역 방송사는 보호막 하나 없이 외롭게 버티는 중입니다. 노조원들과의 동행과 연대를 통해 험난하지만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대전 이상혁
06년 입사 / 기술

대학생 때 여친의 최애인 '튀김주먹밥'을 사러 동네빵집을 자주 갔습니다. 그 빵집은 이제 전국의 인파로 오픈장을 할 지경이고, 운 좋게도 그 여친은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추억 깊은 지역을 전국이 사랑하는 것처럼 MBC 깃발 아래 단일대으로 뭉칩니다. p.s. 동지들의 빵셔틀은 언제든 콜입니다~(OO시루 불가 ㅜㅜ) 투쟁



목포 양현승 (연임)
07년 입사 / 보도

당연히 이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왔던 일을 하면서 안했던 일을 하겠습니다. 투쟁!!



부산 김태형
06년 입사 / 기술

저를 지지해주신 부산지부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16기 노동조합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조합원 여러분의 단합과 강력한 MBC 네트워크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하나 된 부산지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 안병훈 (연임)
11년 입사 / 사업

지역방송은 경영악화에서 비롯한 존폐의 위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경제논리에 갇혀 우리가 지켜왔던 동지애/연대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MBC본부의 힘은 굳건한 연대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지켜왔던 연대의 힘과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 황민
04년 입사 / 편제

이 혼란한 시국에 지부장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공정하고 즐거운 방송의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미래를 만드는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김종수 (연임)
05년 입사 / 보도

또 한 번 무거운 짐을 메고 오르막길에 올라섭니다. 조합원들의 응원과 질책 모두 자양분 삼아 공영방송과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발 더 뛰겠습니다. 본부와 지부의 빈영을 위한 새로운 2년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주 한승우 (연임)
06년 입사 / 편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무도한 정권에 맞서 함께 싸운 기억은 MBC본부 모두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됐습니다. 조합원의 성장과 발전이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합원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굳건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힘찬 결의와 하나 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투쟁!



제주 김승범
13년 입사 / 영상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지역 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책임감 있는 리더십, 투명한 소통, 강한 연대로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춘천 백승호
11년 입사 / 보도

죽느냐, 사느냐.
현재 지역 MBC가 처한 상황입니다. 지역 MBC 회생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충북 김우림
08년 입사 / 편제

지역 MBC의 위기를 시장 논리로만 해석하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미디어 산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패배자라는 낙인에 반대합니다. 지역 MBC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며, 지역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입니다. 돈이 안 되고 표가 안 되는 지역에 사는 우리도 시민입니다. 조합원들과, 지역민들과, 민주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포항 조현근 (연임)
95년 입사 / 영상

지부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맡게 된 책임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을 이끌고, 보다 나은 환경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성실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부를 만들겠습니다.

16기 MBC본부

슬기로운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사무처장 노민철

04년 입사 / 기술

공정방송과 조합원 복지는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합니다.



정책국장 정일섭

16년 입사 / 경영

MBC 본부 정책국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조합원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국장 조재영

07년 입사 /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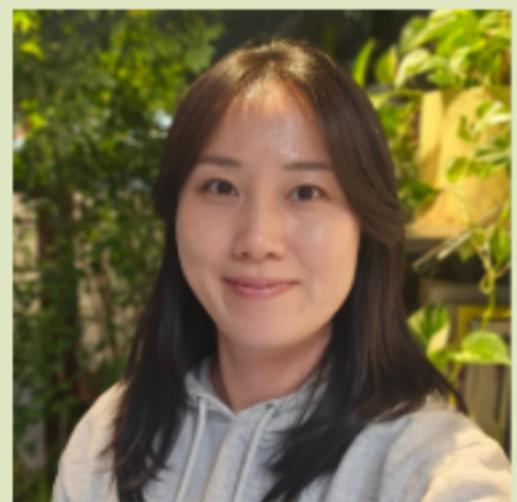
감히 이런 자리를 맡아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MBC 입사 후 때로는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때로는 거친 욕설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조차 혼란스러웠던 시간, 조합 만큼은 늘 변치 않았고 곧은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보도민실위간사 조의명

08년 입사 / 보도

중임을 맡기에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기본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따지기 앞서 깊이 살피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제민실위간사 박선영

06년 입사 / 편제

민주, 언론, 실천. 우리가 쉽게 줄여 말하는 '민실위'란 말에 이렇게 무거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겁지만,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단어인지도 모르겠네요. 임기동안 저 세 단어 단히 짊어지고 잘 듣고, 잘 보겠습니다.



성평등위원장 강나림

07년 입사 / 보도

모두가 다름없이 귀하게 여겨지는 조직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 차별도 희롱도 괴롭힘도 발붙이기 어렵게 되길 바랍니다. MBC가 그런 모습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성평등위원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연대협력국장 반영모

17년 입사 / 기술

그동안 노동조합을 통해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출근이 기대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정다희

16년 입사 / 편제

교육문화국장을 맡게 된 정다희입니다. 앞으로 교육문화적 측면에서 MBC 동료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사업국장 이남훈

11년 입사 / 영디

저는 11년 업무직으로 입사해 전문 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노조원입니다. 2018년 업무직 비대위 당시 전성관 본부장님이 사무처장을 맡고 계실 때에서 직군별 산적한 문제들을 같이 협의하고 직군별 처우를 개선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과 같은 등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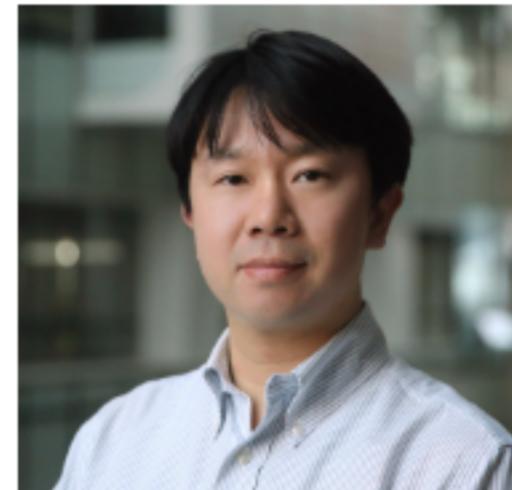
서울지부 부문 부지부장



보도부문

김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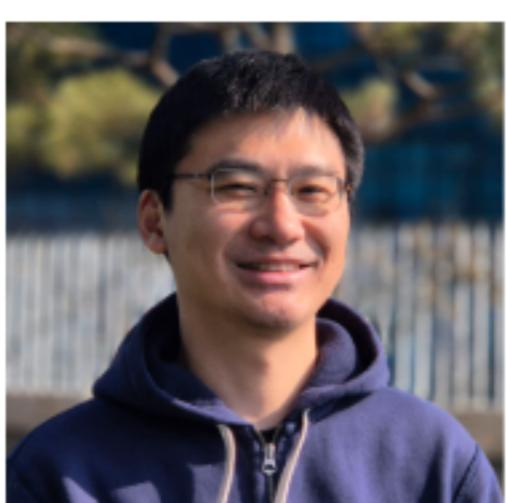
05년 입사



기술부문

김성곤

05년 입사



편성제작부문

김정민

07년 입사



경영부문

성희연

07년 입사



영상디자인부문

김선기

07년 입사